

2022. 8. 21.

성명	
수험번호	
감독관 확인	

# 제68회 KBS한국어능력시험 (홀수형 문제지)

※ 수험번호 맨 끝자리 수가 홀수인  
수험생용입니다.



- 문제지와 답안지에 모두 성명,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와 함께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 본 시험지를 절취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 복사 · 복제 · 출판 · 강의하는 행위와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 홀수형 문항(100문항)

※ 수험번호 맨 끝자리 수가 홀수인 수험생용입니다.

영역	문항 번호
듣기·말하기	1 ~ 15
어휘	16 ~ 30
어법	31 ~ 45
쓰기	46 ~ 50
창안	51 ~ 60
읽기	61 ~ 90
국어 문화	91 ~ 100

## [듣기·말하기] (1번~15번)

## 1.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렘브란트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 ②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속 소녀의 눈과 입술은 흰색과 분홍색으로 섬세하게 강조되어 있다.
- ③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인물의 성격이나 표정보다 대상의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트로니 회화 장르에 속한다.
- ④ 베르메르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같은 상반신 인물화를 유난히 많이 그렸던 화가로 당시에 알려져 있었다.
- 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에 반사된 빛을 물감으로 얇게 칠하는 임파스토 기법이 사용되었다.

## 2. 이 이야기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걱정이 많으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 ② 타인을 비방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 ③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잘난 체하면 안 된다.
- ④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한다.
- 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3. 이 강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소포타미아인들은 겨울철에 흔한 얼음을 잘 보관하여 여름에 이용하는 지혜가 있었다.
- ② 항아리 냉장고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용했던 ‘증발 냉각 효과’를 실생활에 응용한 것이다.
- ③ 항아리 냉장고 덕분에 아프리카 농촌 아이들은 매일 더 많은 채소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되었다.
- ④ 저개발국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빨래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가사 노동을 맡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⑤ 페달 세탁기는 기존 세탁기와 거의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면서 가사 노동의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발명품이다.

4. 이 방송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화『미술관 옆 동물원』은 젊은이들의 사랑을 상쾌하고 상큼하게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다.
- ② 영화『미술관 옆 동물원』속 주인공 춘희는 처음에는 인공을 짝사랑했지만 점점 철수와 가까워지게 된다.
- ③ 영화『미술관 옆 동물원』속에 나오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엘가가 사랑하는 아내 앨리스를 위해 만든 곡이다.
- ④ 영화『미술관 옆 동물원』속 <사랑의 인사>는 사랑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곡이다.
- ⑤ 영화『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철수가 고물차를 몰고 춘희의 집 앞으로 등장할 때 나오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웅장한 클래식 풍으로 편곡된 것이다.

5.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상은?

- ① 봄                      ② 새싹                      ③ 아기                      ④ 강아지                      ⑤ 개구리

6. 전문가가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해설작가는 방송물의 대본을 재작성하는 업무를 한다.
- ② 화면해설작가는 묵음 구간 동안의 상황을 글로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화면해설작가가 되는 데 특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화면해설작가 양성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기본 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다.
- ⑤ 화면해설작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화면의 내용을 글로 적어 보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

7. 진행자의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③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④ 청취자가 궁금해할 법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답변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8. 대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의 결혼에 대해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반대한다.
- ②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결혼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드러낸다.
- ③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혼 상대를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는 자식들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⑤ 아들은 다른 자식들도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9. 대화에 나타난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마지막에 이어질 아버지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희들이 뭐래도 난 결혼한다!”
- ②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자식이나?”
- ③ “죽은 너희 엄마도 내 심정을 이해할 거다.”
- ④ “너희도 내 처지였다면 나처럼 결정했을 거다.”
- ⑤ “가족 모두가 반대한다면 내가 결혼은 포기하마.”

10. 강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의 파오차이는 쓰촨성의 대표 발효 음식이다.
- ② 파오차이는 김치와 달리 가능한 한 물기가 없도록 만든다.
- ③ 김치는 두 단계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다.
- ④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쓰촨 김치를 중국 브랜드화하려 하고 있다.
- ⑤ 김치의 어원인 ‘딤치’의 한자 표기는 중국의 고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1. 이 강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치 조리법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파오차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김치와 파오차이의 영양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전 세계의 채소 절임 식품을 조리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를 조리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12.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년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
- ②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③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을 촉법소년의 교화에 두어서는 안 된다.
- ④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소년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
- ⑤ 정치권은 소년 범죄 해결책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내세우고 있다.

13. 발표의 내용 구성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년 범죄 발생의 맥락을 제시하면서 반론을 펼치고 있다.
- ② 촉법소년 당사자를 인터뷰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 ③ 언론 보도 내용을 활용하여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 ④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14.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패널 모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 ② 남성 패널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 목줄 미착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여성 패널은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이 입마개 미착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④ 남성 패널은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와 견주의 권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여성 패널은 대형견 입마개 착용으로, 개를 키우지 않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15. 뒤에 이어질 사회자의 발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네,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이는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 줍니다.
- ② 네, 다수에게 불편함이 된다면 소수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③ 네,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 부재하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탁상행정식 해결 방안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④ 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시민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데는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 ⑤ 네,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동물 학대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어휘] (16번~30번)

16. 신체와 관련된 말의 의미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 ① 꼭뒹: 머리 위의 솟구멍이 있는 자리.
- ② 회목: 손목이나 발목의 잘록한 부분.
- ③ 오금: 다리에서 무릎 관절 위의 부분.
- ④ 궁둥이: 볼기의 윗부분.
- ⑤ 종아리: 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17. 밑줄 친 한자어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천추(千秋)의 한: 오래고 긴 세월.
- ② 굴지(屈指)의 실업가: 매우 뛰어나 수많은 가운데서 손꼽힘.
- ③ 공전(空前)의 대성황: 이전에 경험했던 현상이나 상황이 되풀이됨.
- ④ 금일봉(金一封)을 하사하다: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봉하여 주는 돈.
- ⑤ 기선(機先)을 제압하다: 상대방의 세력이나 기세를 억누르기 위하여 먼저 행동하는 것.

18.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의 태도가 지난번과 사뭇 달라 놀랐다. →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 ② 후배는 일껏 마련해 준 기회를 마다했다. → 모처럼 애써서.
- ③ 동생의 말에 아버지는 짙짙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 ④ 회사에서는 이번 신상품에 대한 기대가 자뭇 크다. → 생각보다 매우.
- ⑤ 내가 이 일에서 얻은 성과는 이루 말하기 어렵다. → 여간하여서는 도저히.

1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 규명(糾明)을 촉구하였다.
- ② 지역 문화 창달(暢達)을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였다.
- ③ 민심 이반(離反)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 ④ 기업의 경쟁력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⑤ 생산품의 품질 계량(計量)을 위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였다.

20. ‘기운이나 기세가 끓어오를 듯이 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발발(勃勃)하다’의 용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임진년에 이르러 왜란이 발발했다.
- ② 화재가 발발하자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했다.
- ③ 또 다른 감염병이 발발하면서 방역이 재개되었다.
- ④ 신입생들은 생기가 발발해서 구김살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 ⑤ 새로운 예술이 발발하게 일어나면서 문예 부흥의 꽃이 피었다.

21. <보기>의 ㉠~㉣에 해당하는 한자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 보 기 >

- ㉠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
- 넓은 아량으로 ㉡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다.
- 이 말은 오래전부터 ㉢ 관용적으로 써 오던 용어이다.

㉠    ㉡    ㉢

- ① 慣用   寬容   官用
- ② 慣用   官用   寬容
- ③ 官用   寬容   慣用
- ④ 官用   慣用   寬容
- ⑤ 寬容   慣用   官用

22. <보기>의 ㉠~㉣을 다의어끼리 짝지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일이 너무 ㉠돼서 조금만 일해도 지친다.
- 반죽이 ㉡되니 물을 조금 더 넣는 게 좋겠다.
- 시간이 흐르면 올챙이는 개구리가 ㉢될 것이다.
-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쌀을 ㉣되니 정확한 양이었다.
- 일이 원활하게 ㉤되려니까 주위 사람들이 모두 도와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은 음전하고 추웠다.
- ②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 ③ 철수는 남들에 비해 귀가 크고 귓밥이 두툼한 편이다.
- ④ 형은 친구들에게 조금씩 빌렸던 돈을 한목에 다 갚았다.
- ⑤ 이 향내는 남자의 얼굴에 발려 있는 화장품에서 나는 듯하다.

24. 밑줄 친 한자어에 대응하는 고유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금에 이자를 가(加)해서(→ 더해서) 갚아라.
- ②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에다 비(比)하랴(→ 견주랴)?
- ③ 지금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處)해(→ 놓여) 있습니다.
- ④ 인삼은 기를 보(補)하는(→ 모으는) 약재로서 그 효능이 뛰어나다.
- ⑤ 사고는 부주의로 인(因)해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5. “물에 젖은 옷이 몸에 찰찰 감긴다.”에 사용된 ‘찰찰’과 같은 의미는?

- 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부자리를 찰찰 개킨다.
- ② 형과 동생은 손발이 찰찰 맞아 일이 거침이 없다.
- ③ 이번 행사는 모든 준비가 찰찰 순조롭게 되고 있다.
- ④ 출연자가 어려운 질문에도 찰찰 거침없이 대답한다.
- ⑤ 그릇에 담긴 찰떡이 서로 찰찰 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26. 밑줄 친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은 할 탓이라고,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되겠니?
- ②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데, 속 시원하게 털어봐 보렴.
- ③ 쓸데없는 이야기 주워섬기지 말아라.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고 했다.
- ④ 소문만 믿고 그렇게 큰돈을 투자하다니, 아이 말 듣고 배 따는 셈이구나.
- 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고, 듣기 싫은 소리가 삶에 교훈이 되는 법이다.

27. 사자성어의 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견견폐요(桀犬吠堯): 견왕의 개가 요임금을 향하여 짖는다는 뜻으로, 각자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② 과유불급(過猶不及): 정도가 지나쳐도 원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을 이르는 말.
- ③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늙고 쇠약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음을 이르는 말.
- ④ 촌철살인(寸鐵殺人):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⑤ 한우충동(汗牛充棟):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들보에까지 찬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이르는 말.



28.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감투를 쓰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 감투를 쓰다: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르다.
- ② 공원을 산책하는데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 귀에 익다: 들은 기억이 있다.
- ③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본론을 이야기해라.  
→ 뜸 들이다: 일이나 말을 할 때에, 쉬거나 여유를 갖기 위해 서둘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
- ④ 친구가 오늘따라 유독 심사가 쾌적 나와 자주 싸웠다.  
→ 심사가 쾌지다: 잘 대하려는 마음이 들어서서 심술궂게 나가지 않다.
- ⑤ 누군가에게 내 심사를 털어놓고 훌가분해지고 싶다.  
→ 심사를 털어놓다: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 따위를 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다.

29. 밑줄 친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꾼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병원 가료(加療)(→ 입원) 중이니 멀리서나마 쾌유를 빌어 주세요.
- ② 19년째 고정된 직장인 식대(食代)(→ 식비) 비과세 한도가 올라갈 전망이다.
- ③ 소란스러웠던 극장 안이 임석(臨席)(→ 현장 참석) 경찰관의 도움으로 다시 조용해졌다.
- ④ 이번 민원 처리는 수범(垂範) 사례(→ 모범 사례)로 널리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⑤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등산용 양말 2족(足)(→ 켄레), 생수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30. 밑줄 친 표현을 순화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로컬 푸드(→ 지역 먹을거리) 직매장 출하 규정을 일원화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 ② 주민들이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리빙 랩(→ 농촌 체험실)이 문을 열었다.
- ③ 경제 활력을 잃은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해 유니콘 기업(→ 거대 신생 기업)이 나선다.
- ④ 외식 업계가 생존을 위해 테이크아웃(→ 포장 판매)과 배달에 나섰다.
- ⑤ 외국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랩 투어(→ 초청 홍보 여행)를 기획했다.

### [어법] (31번~45번)

31. 단어의 표기가 올바르게 아닌 것은?

- ① 곤장      ② 연셈      ③ 선달      ④ 사흔날      ⑤ 반진고리

32. 사이시옷의 표기가 올바른 것은?

- ① 땃가      ② 땃집      ③ 땃층      ④ 햏님      ⑤ 땃풀이

33.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옳지 아닌 것은?

- ① 모두 목을 기다랗게 빼고 형을 기다렸다.
- ② 높다란 나무 꼭대기에 보름달이 걸려 있다.
- ③ 산 위에는 짧다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 ④ 불합격 소식에 모두 깊다란 침묵에 잠겨 버렸다.
- ⑤ 동생은 옷을 때마다 눈가에 잔다랗게 주름이 잡힌다.

3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를 수정한 결과가 올바른 것은?

- ①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 부부 간에도)
- ②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 할 지를)
- ③ 유학을 간 동생이 몇 년만에 돌아왔다. (→ 몇 년 만에)
- ④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시절이 그리워진다. (→ 지날 수록)
- ⑤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 일에는 순서가 있다. (→ 말했 듯)

35. 비표준어를 표준어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네는 내 말이 그렇게 시답잖게(→ 시답잖게) 들리는가?
- ② 부모님의 가이없는(→ 가없는) 사랑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 ③ 농번기에는 일손이 팔려서(→ 달려서) 다들 힘을 모아야 한다.
- ④ 이름은 고깃국이지만 고기 건데기(→ 건덕지) 하나 없는 멸건 국이었다.
- ⑤ 하계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모두 거무틑틑하게(→ 거무튀튀하게) 그을었다.

36. 상표의 쓰임에 대한 설명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예] 7, 8세기
- ② 짝을 지어 구분할 때 사용한다. [예] 사람은 음식물을 섭취, 소화, 배설하며 살아간다.
- ③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예]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
- ④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예]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 ⑤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아침에는 사과를, 저녁에는 수박을 먹었다.

37. 밑줄 친 말이 어문 규범에 맞는 것은?

- ① 이 마을은 옛스러운 정취가 있다.
- ② 요즘 얼굴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다.
- ③ 여야 대치로 정국이 안갯속에 빠졌다.
- ④ 이 일은 처음에 번짓수를 잘못 짰었다.
- ⑤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배냇옷을 준비했다.

38. 짝지어진 단어가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늦장-늑장                      ② 살갱이-삼                      ③ 서럽다-췌다  
④ 우레-천둥                      ⑤ 아주-영판

3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닭장[닥짱], 뽀대다[뽀때다], 넓죽하다[넙쭈카다]

- ① 받침소리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이다.
- ② 어간 받침 소리 ‘ㄴ, ㅁ’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이다.
- ③ 한자어의 ‘ㄹ’ 받침 소리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이다.
-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이다.
- ⑤ 관형격 기능의 사이시옷에 의해 일어나는 경음화의 예이다.

40. 밑줄 친 말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저 집 마당에는 불독(bulldog) 한 마리가 늘 버티고 앉아 있다.
- ② 컴퓨터로 영상 회의에 참석하려면 헤드세트(headset)가 필요하다.
- ③ 이번에 볼 영화는 영상미가 돋보이고 굉장히 스릴(thrill)이 있다고 한다.
- ④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오일펜스(oil fence)를 쳐야 한다.
- ⑤ 그동안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엘보우(elbow)가 와서 요새 팔이 많이 아프다.

4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보탑(Dabotap)                      ② 반구대(Bangudae)                      ③ 낙화암(Nakhwaam)
- ④ 낙동강(Nakdonggang)              ⑤ 몽촌토성(Mongchontosung)

42. 문장이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② 나는 네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있다.
- ③ 용서를 빌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많다.
- ④ 이 음식은 도무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 ⑤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

43. 다음 문장에 실현된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야, 할아버지 집에 계시니?  
→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② 아버지, 선생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신답니까?  
→ 종결어미 ‘-니까’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 ③ 철수야, 이 책을 옆집 아저씨께 드리고 오너라.  
→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옆집 아저씨’를 높이고 있다.
- ④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리세요.  
→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다.
- 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44.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은?

- ① 철수와 영희는 결혼하지 않았다.
- ② 심사위원들이 다 참석하지 않았다.
- ③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를 사랑했다.
- ④ 그는 성실한 모습을 언제나 보여 왔다.
- ⑤ 나는 어제 나와 이름이 같은 친구의 형을 만났다.

45. 다음 문장의 번역 투 표현을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사당은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다.  
→ 국회의사당은 영등포구에 있다.
- ② 사람과 유리된 예술은 허상에 다름 아니다.  
→ 사람과 유리된 예술은 허상과 다르지 않다.
- ③ 이 호텔은 수많은 편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 이 호텔은 수많은 편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
- ④ 갑작스레 내린 비가 우리를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  
→ 갑작스레 내린 비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 ⑤ 그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그는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 [쓰기] (46번~50번)

※ [46~50]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를 소재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제시된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개인 방송이 문화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영상을 실시간 또는 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가 방송 구독자 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욕심에 경찰서에 들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근래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들이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규제 지침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법률적 규제 지침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창작자의 ㉡자율적인 자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개인 방송의 수익 구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인 방송 플랫폼은 창작자가 일정 수의 구독자를 얻어야 방송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구독자의 증가에 따라 수익이 늘어난다. ㉢한편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들은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창작자들의 자정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10대의 인터넷 개인 방송 1인 평균 시청 시간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길며, 10대 창작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10대들은 성인에 비해 외부 자극에 민감하며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가 하는 자극적인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방송을 창작하기도 한다. 실제로 청소년 대부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의 유행어 중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미치는 과급력이 큰 만큼, 10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면 문화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문화 산업이든 내용적 측면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진다면 기대하기 어렵다. 자율적 책임을 넘어 합리적인 법률적 규제 지침이 마련된다면 건전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46. 다음은 윗글을 작성하기 전에 떠올린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글쓰기 계획〉

- ㉠ 소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의 개념을 제시해야겠다.
- ㉡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수익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다.
- ㉢ 인터넷 개인 방송의 법률적 규제 지침 마련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해야겠다.
- ㉣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최근 인기를 얻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콘텐츠 유형을 설명해야겠다.
- ㉤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사례를 들어 주장의 배경을 드러내야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자료〉

(가) 학생 인터뷰

“얼마 전 평소 즐겨 보던 인터넷 개인 방송의 창작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사회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멋졌는데, 점점 구독자들의 입맛에 맞춰 도가 넘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바로 사이트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지만 신고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방송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나) 연구 보고서

10대들은 인정 욕구와 모방 심리가 강해 자극적인 개인 방송을 시청하면 자신도 그와 같은 방송을 찍어 인기를 얻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 신문 기사

독일은 2018년 1월부터 혐오 표현, 가짜 정보 등 형법에 규정된 21개의 불법 요소가 담긴 게시물 및 영상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네트워크 법을 시행했다. 이에 6개월 동안 한 사이트에서만 삭제된 영상이 10만 건에 이른다.

- ① (가)를 활용하여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인터넷 개인 방송의 10대 시청자가 방송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심리적 원인을 제시해 내용을 보완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시행되는 선례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법률적 규제를 통해 현재 각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에서 시행하는 자율 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구독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10대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함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48. 윗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의 결론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고 이를 재반박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여러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통계 자료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49. 윗글의 ㉠~㉣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상 맞지 않으므로 ‘늘리고자’로 바꾼다.
- ② ㉡: ‘자정’과 의미상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③ ㉢: 문맥상 흐름을 고려해 ‘또한’으로 바꾼다.
- ④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도록 ‘있다는 점이다’를 ‘있다’로 수정한다.
- ⑤ ㉤: 문맥상 목적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발전을’을 추가한다.

50. 윗글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힌다.
- ②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이 주목받는 이유를 삽입한다.
- ③ 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개인 방송 10대 시청자들의 인터뷰를 삽입한다.
- ④ 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독자 증가에 따른 수익의 증가를 수치로 구체화한다.
- ⑤ 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 [창안] (51번~60번)

※ [51~53] 감시의 눈[目] 효과와 인간 사회를 유비(類比)하고자 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휴게실에 커피, 우유, 차 등의 음료 자을 계산대를 설치하고, 메뉴판 윗부분에 일주일의 사람 눈 사진을 붙이고 다음 일주일에는 꽃 사진을 붙였다. 실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꽃 사진을 붙여놨을 때보다 사람 눈 사진을 붙여놨을 때 돈이 약 2.8배나 더 걷힌 것이다. 누군가 직접 지켜보지 않더라도 눈[目]이 그려져 있는 사진만으로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험이었다.</p>
<p>그림 (가)</p>	
	<p>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해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는 눈[目] 모양의 반사지 스티커로, 주간에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스티커로 유도하고, 야간에는 전조등 빛을 약 200m 후방까지 반사시켜 전방 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을 예방한다. 고객 체험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전 운전을 유도해 추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p>
<p>그림 (나)</p>	

두 예시처럼, 누군가 직접 지켜보지 않더라도 시선이 느껴지는 상황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사람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시선에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감시의 눈[目]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 이 효과를 활용하면 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거나 사회적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1. 윗글의 ㉠과 관련지어 주장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타인을 의식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보다 독립적 존재에 가깝다.
- ② 인간의 이타주의는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적 동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③ 사회 규칙은 외부의 시선과 관계없이 개인의 양심적 판단으로 더 잘 지켜진다.
- ④ 심리적 압박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바람직한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 ⑤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인 존재임을 자각할 때 행동이 변화하는 탈사회적 모습을 보인다.

52. 윗글의 ㉡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 카메라 녹화 중이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 놔야겠군.
- ②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지하철 요금을 받는 곳에 역무원을 본뜬 등신대를 설치해야겠군.
- ③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과속이 잦은 고속도로 위치에 경찰차 모형을 세워 놓아야겠군.
- ④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겠군.
- ⑤ 원격 수업 시 학생들의 참여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켜게 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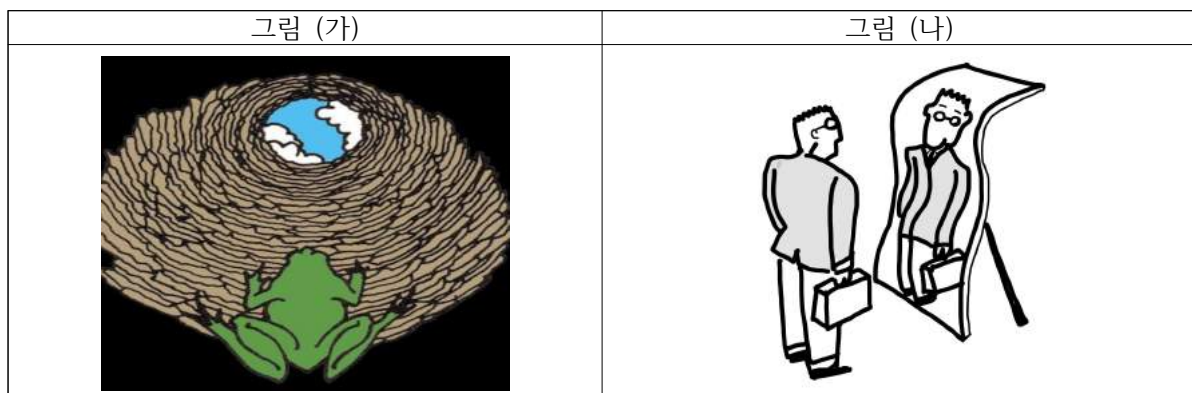
53. 공익광고 문구를 <조건>에 맞게 창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CCTV 확대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감시의 눈[目]’ 속성에 빗대어 표현할 것.

- ① 카메라의 눈보다 양심의 눈이 필요할 때입니다.
- ② 카메라에 담긴 모습이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 ③ 현재를 보는 눈보다 미래를 향한 눈이 필요합니다.
- ④ 사각지대 없는 카메라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⑤ 카메라가 지켜보는 삶에는 거짓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 [54~56] 다음 그림 (가)와 (나)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54. 다음은 그림 (가)와 (나)를 분석한 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표현	㉠ ‘좌정관천’을 그림으로 표현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거울
핵심	㉡ 건물이 매우 좁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 거울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 주기도 한다.
주제	㉣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부리지 말자.	㉤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만을 믿는 태도가 필요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5.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 그림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이는 대로 믿기보다는 넓은 시야로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 ② 다양한 현상의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사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56. 그림 (나)를 활용하여 <보기>의 밑줄 친 인물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왕비는 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거울은 늘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대답했다. 백설공주가 7살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왕비는 어느 때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받으려 거울에게 질문을 하지만, 거울은 “왕비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이에 엄청난 질투를 느낀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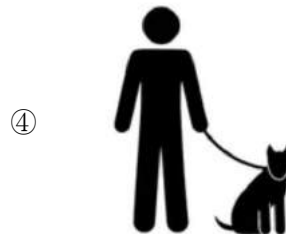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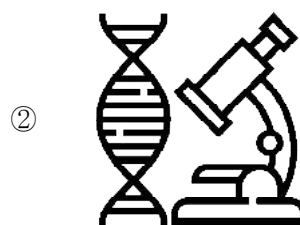
- 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수용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宿命이다.
- ②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자신이 바라보는 ‘나’가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타인과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④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⑤ 타인의 시선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 [57~58]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림 (가)	
그림 (나)	
그림 (다)	?

57. (가), (나), (다)가 동일한 주제의 그림이라 할 때, (다)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58. 그림 (가)~(다)가 나타내는 교훈이 필요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코백을 판매하는 가게
- ② 친환경 농법을 활용하는 농촌
- ③ 남은 음식물이 많이 버려지는 뷔페
- ④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는 가정
- ⑤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는 식당

※ [59~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몰아낸다’라는 말이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악성 화폐와 질 좋은 화폐가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은 값어치 나가는 질 좋은 화폐는 지갑에 넣어두고 질 낮은 화폐로만 물건값을 지불한다. 두 화폐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결국 좋은 화폐는 유통되지 못하고 질 낮은 화폐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원래 경제학적 의미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공정한 규칙이 제시되지 않거나 규칙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는 관용적인 의미로 쓰인다.

59. 윗글의 ㉠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단속하지 않자 아무도 정품을 사지 않는다.
- ② 원작 영화에 비해 리메이크된 영화가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 ③ 저작권이 보장되지 않자 원작을 표절한 작품들이 다수 탄생하였다.
- ④ 건설 현장의 감리가 느슨해지자 덤프로 인한 부실 공사가 늘고 있다.
- ⑤ 농산물 원산지 단속이 허술해지자 값싼 수입산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60. 윗글을 리더십과 관련지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직의 성장을 위해 도전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 ② 조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 ③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 ④ 조직의 혁신을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 ⑤ 조직의 성과를 위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렬해야 한다.

## [읽기] (61번~90번)

※ [61~6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길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6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명령형 어미를 반복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부각하고 있다.

62. ㉠~㉤ 중, &lt;보기&gt;의 ㉡와 관련된 것은?

&lt;보기&gt;

이 작품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 앞으로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63~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산 통제영에서 장계를 쓰던 임진년의 여름밤은 달이 밝았다. 나는 내 무인된 운명을 깊이 시름하였다. 한 자루의 칼과 더불어 나는 포위되어 있었고 세상의 텃에 걸려 있었지만, 이 세상의 칼로 이 세상의 보이지 않는 텃을 칠 수는 없었다. 한산 통제영에서 그리고 그 후의 여러 포구와 수영에서 나는 자주 식은땀을 흘렸고, 때때로 가엾고 안쓰러워서 칼을 버리고 싶었다.

명량 전투에 관한 소문은 내가 보낸 장계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그 소문은 명나라 총병부의 정탐들이 퍼뜨리는 것 같았다. 나는 등골이 으스스했다.

명량의 장계를 보낸 지 두 달 만에 논공행상이 내려왔다. 선전관은 오지 않고, 조정의 명을 받들어 도원수부가 시행했다. 거제 현령 안위가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고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읍진 수령과 군관들이 승진했다. 나에게서는 상금으로 은전 스무 냥을 보내왔다. 스무 냥의 무게와 질감은 섬뜩했다. 그 스무 냥 속에서 남쪽 바다를 들여다보는 임금의 눈은 가늘게 번뜩이고 있었다. [A]

스무 냥이 내려온 지 이틀 뒤에, 임금이 보낸 선전관 이원길은 목포 앞바다 고하도 수영에 도착했다. 이원길은 수하를 거느리고 병영 막사 공사장까지 나를 찾아왔다. 서울 출신 문관인데, 바다를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다. 몸매가 가냘팠고 흰 손가락이 길었다. 먼 길을 온 사람 같지 않게 그의 의관이 반듯했고 여독의 기색이 없었다. 수군 병영의 온갖 너저분한 풍경에 그는 자주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공사장 천막에서 그를 맞았다. 나는 인사했다.

—객고가 크시겠소. 전하께서 수군을 이처럼 염려하여 주시니 감읍할 뿐이오.

—전하의 근심이 실로 깊소이다. 달아난 배설 말이오.

명량 전투 직전에 탈영 도주한 경상 우수사 배설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이 임무라고 그는 밝혔다. 그가 데리고 온 부하들 중에는 무관들이 섞여 있었다. 배설은 이미 수군에서 도망쳤는데, 배설을 체포하는 일로 선전관이 남해의 수군 수영까지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배설은 이미 달아났지 않소? 배설을 잡으려면 이리로 오실 게 아니라 그의 본가 마을로 가서야 하지 않겠소? 경상도 성주 말이오.

—통제공, 그게 그리 간단치가 않소이다. 성주에도 군사들을 보냈으나 잡지 못했소. 배설이 성주에 들어온 흔적도 찾지 못했소. 배설이 비록 달아났다 하나 본래 담력 있는 무장이었소. 따르는 장졸들도 많았던 것으로 아오. 이자가 달아나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전하의 근심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오.

나는 겨우 알았다. 임금이 수군통제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명량 싸움의 결과가 임금은 두려운 것이다. 수영 안에 혹시라도 배설을 감추어놓고 역모의 군사라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임금의 조바심이었다.

이원길은 열흘 동안 수영에 머물렀다. 이원길은 데리고 온 수하들을 풀어 병영 안을 모두 뒤졌고 수영 인근 백성들의 마을 헛간까지 뒤졌다. 이원길은 명량 전투 이전과 이후의 장졸들의 숫자를 점검했고 각 읍진의 탈영자 숫자를 확인했다. 이원길의 수하들이 수영의 모든 군관들을 불러서 배설의 탈영 경위와 탈영 직전 상황을 수사했다. 이원길의 수사의 초점은 배설이 수영에서 탈영했느냐 아니냐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원길은 귀로에 우수영, 벽파진, 삼지원까지 뒤지고 돌아갔다.

나는 돌아가는 이원길을 전송하지 않았다. 이원길이 돌아가는 날짜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나는 목수들을 데리고 앞섬의 산속으로 들어가 신축 막사에 쓸 재목을 실어내고 있었다. 산속 가파른 비탈에서 목수 한 명이 굴러내리는 나무에 깔려 죽었다. 내 종사관 김수철이 돌아가는 이원길 일행에게 점심을 차려내고 건어물을 싸주어 보냈다.

이원길이가 돌아간 지 보름 뒤에 임금이 보낸 ㉠ 면사첩(免死帖)을 받았다. 도원수부의 행정관이 면사첩을 들고 왔다. ‘면사’ 두 글자뿐이었다. 다른 아무 문구도 없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임금의 기동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죄에 대하여 죽음을 면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면사첩을 받던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나는 ‘면사’ 두 글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죽이지는 않겠다고 임금은 멀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면사’ 두 글자 속에서, 뒤척이며 돌아눕는 임금의 해소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글자 밑의 옥새는 인주가 묻어날 듯이 새빨갰다. 칼을 올려놓은 시령 아래 면사첩을 걸었다. 저 칼이 나의 칼인가 임금의 칼인가. 면사첩 위 시령에서 내 환도 두 자루는 나를 베는 임금의 칼처럼 보였다.

- 김훈, 『칼의 노래』

63.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건과 대상을 활용하여 개인의 내면을 부각한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 ③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하여 사건이 일어난 연유를 구체화한다.
- ④ 현학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⑤ 서로 무관한 사건들의 병치를 통해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준다.

64. 윗글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사첩’에 따르면, ‘임금’은 ‘나’에게 시해를 베푼 존재이다.
- ② ‘면사첩’에 따르면, ‘나’의 죄는 조정을 능멸한 대역죄와 관련된다.
- ③ ‘면사첩’에 따르면, ‘임금’은 ‘나’의 죄를 사면할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
- ④ ‘면사첩’에 따르면, 명량 전투 이후 ‘나’에 대한 임금의 의혹은 해소되었다.
- ⑤ ‘면사첩’에 따르면, 임금은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65.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칼의 노래』는 개인을 고통스럽게 내모는 부정적 현실이나 특정의 역사적 상황과 대면한 ‘나’(이순신)의 고뇌와 결단의 과정이 ‘회상’의 형식을 통해 서사화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나’는 유가적 이념만을 체화한 영웅의 인물 형상이 아닌, 자기 연민에 빠진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 ① ‘나’가 ‘장계를 쓰던 임진년의 여름밤’에 ‘무인된 운명을 깊이 시름’하는 장면에서 ‘나’의 고뇌가 회상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군.
- ② ‘나’가 세상의 뒷에 걸린 스스로를 ‘가엾고 안쓰러워’하는 장면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내면을 가진 인물 형상이 부각되는군.
- ③ ‘나’가 ‘명나라 총병부의 정탐들’의 행위에 대해 ‘으스스’ 떠는 장면에서 특정의 역사적 상황과 대면한 ‘나’의 고독한 내면이 서사화되는군.
- ④ ‘이원길’이 수군 수영에 내려와 수사를 하는 장면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는군.
- ⑤ ‘나’가 ‘이원길을 전송하지 않’는 장면에서 유가적 이념이 소거된 인물 형상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66~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직자들은 성서에도 사람을 죽인 동물은 유죄이며 불결하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출애굽기」에는 “남자나 여자를 죽인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의 주인은 죄가 없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중세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 작가들이 동물한테도 스스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그러하듯이 동물도 영혼을 지니는데, 생명의 숨결인 그것은 죽은 뒤 신에게 돌아간다. 영혼은 생육을 하며, 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영양·성장·재생의 근원이다. 영혼은 감지를 하며, 그것은 모든 감각의 근원이자 인간과 유사한 정도로 고등하다고 판단되는 동물들이 지닌 지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동물도 꿈을 꾸고 식별하며 추론하고 기억하며, 새로운 습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물이 인간처럼 사고의 원천과 영적인 원천을 지니고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두 성질은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한 동물은 분명히 감각적인 인식 능력과 어떤 종류의 실천적 지성을 갖추고 있고, 어떤 감정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것을 지각할 수는 없다. 자신에게 친숙한 ‘집’을 분간할 수는 있지만, ‘집’이라는 추상 관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동물이 어떻게 추론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 주면서 다른 능력의 한계를 제시했다. 그는 지능이 높은 동물에게도 신호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을 뿐, 결코 오늘날 상징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운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은 실체가 없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모든 종교적·도덕적 관념과 추상적 관념은 동물에게 금지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을 재판에 부치는 것에 반대했다. 동물은 사물의 숫자, 나아가 신호까지도 인식할 수 있지만 선악을 구분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스콜라 신학은 동물의 내세와 현세에 관해 수많은 물음을 던지고 동물을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로 다룰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물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중세 말의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은 대부분 그 물음에 계속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17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 철학자들이 등장했다. 예컨대 데카르트에게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성적 능력도 없는 존재였다. 동물은 오롯이 ㉡ 기계론적 기관이었다. 얼마 뒤 라메트라는 이러한 이론을 인간에게까지 넓혀 적용하였다. 말브랑슈에 따르면, 동물은 번민을 알지 못한다. 번민은 원죄가 가져온 것이고, 동물은 원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을 도덕적이고, 책임이라는 관념을 지니고, 선으로 향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작가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라신은 『소송광』이라는 희곡 작품에서, 당탱 판사가 식용 닭을 훔친 개에게 갠리션으로 보내 노를 젓게 하는 형벌을 내린 판결을 우스갯거리로 다루었다.

66.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사상가들은 동물 재판을 부정했다.
- ② 스콜라 철학자들은 동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 ③ 중세에는 동물도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작가들이 있었다.
- ④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물이 추상 관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토마스 아퀴나스와 중세 말 많은 사상가들은 동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

6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종교관에 반대하는
- ② 기존의 내세관에 반대하는
- ③ 기존의 동물 개념에 반대하는
- ④ 기존의 선악 개념에 반대하는
- ⑤ 기존의 영혼 개념에 반대하는

68.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은 추론하고 기억할 수 있다.
- ② 동물에게 선악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 ③ 원죄의 개념이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④ 동물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
- ⑤ 동물의 생명 현상과 기계를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 [69~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식은 어떤 사건 또는 사물의 인과 관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다. 사물의 특성이나 사건의 흐름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다. 이러한 경험들이 남긴 기억에서는 어떤 사물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질들,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로 일어나는 공통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추상화 과정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지식은 규칙이나 법칙으로 구체화된다. 지능은 알고 있던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지능을 일으키는 원천은 바로 지식이다. 지식을 활용하는 추론, 추리 과정을 통해 지능은 관찰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능의 의미는 지식의 추론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활동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지능 활동은 추론이나 추리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인간은 지식을 담아내는 수단도 함께 만들었는데, 우리가 쓰는 말, 문자, 그림 따위가 지식을 기록하고 저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것이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이라 하여 법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보호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디지털 정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창작물을 저장하고 이용하는 수단 또한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다. 가상 현실, 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식도 출현하고 있다. 이들은 글이나, 말, 음악, 영상의 요소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전통적 표현 형식을 크게 벗어났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된 장치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이들도 사람의 창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담아내는 공정은 아니라고들 여긴다. 사람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기기를 모아서 제조 과정을 구성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기기들을 조작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조절 요소를 조화롭게 설정할 경우, 그로 말미암아 품질의 개선이나 생산량의 확대가 뒤따른다. 그것을 우리는 ‘노하우’라고 부른다. 이것을 창작의 산물이 아니라 보기도 하지만, 노하우는 생산 현장의 지식이며 그 가치 또한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노하우와 같은 생산 현장의 지식을 전통적인 형식, 즉 언어적 저작물, 촬영 영상,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또한

창작물의 범주에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기술을 적용한 생산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 따라 발생한 데이터를 모두 모아 콘텐츠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의 가치가 담긴 콘텐츠 데이터를 어떤 규칙이나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현장에 ‘재현’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전통적인 형식의 표현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새로운 기호 매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담고 있는 내용도 직접 드러나지 않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만 발현되도록 내재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산물이다. 오늘날 지식 환경의 변화는 이들도 저작물의 범주에 넣는 과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6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이다.
- ② 사람은 추리와 추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지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 ③ 지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상화 과정이다.
- ④ 규칙은 지능의 구체적 작용으로서 일정한 범주에 있는 사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⑤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표현 형식인 가상 현실은 전통적인 문자 표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70. 윗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관점의 주장을 절충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② 어려운 개념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 ④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시한다.
- ⑤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이견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도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산업 현장에서의 노하우도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제품의 생산 과정 자체는 창작의 산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인정한다.
- ④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종래 인정되지 않던 지식도 새롭게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⑤ 생산 과정에서 품질의 개선이나 생산량의 확대를 가져오는 설정 방법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72. 윗글에 비추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공 지능은 사람의 지적 활동을 기계 장치가 흉내 내거나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 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 지능을 그대로 사람의 지능 활동과 연결하면 기계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하지 않은 영역의 데이터에 대해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된다.



- ① 컴퓨터가 기억하는 정보는 지식에 견줄 수 있다.
- ② 컴퓨터가 처리하는 지식은 데이터로 저장된 정보가 그 원천이 된다.
- ③ 컴퓨터가 기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과정을 사람의 지능에 견주어 인공 지능이라 한다.
- ④ 컴퓨터가 저장하는 정보는 언어와 음악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능 활동과 유사하다.
- ⑤ 컴퓨터가 학습하는 지식을 통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알아내는 능력이 없다면 인공 지능이라 할 수 없다.

※ [73~7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 역학에서 EPR 역설은 물리량의 측정 문제를 제기한 사고 실험이다. 사고 실험이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진행되는 실험으로 실험에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가정한 후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날 결과를 예측한다. 1935년 ① 아인슈타인(Einstein)은 포돌스키(Podolsky), 로젠(Rosen)과 함께 양자 역학이 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이 역설을 발표했으며, EPR은 그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역설은 양자 역학의 주류인 코펜하겐학파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다. 코펜하겐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전자(電子)는 파동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태가 확률적으로 겹쳐있으며, 관측을 하면 그와 동시에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더 이상 겹침 상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된다. EPR 역설은 코펜하겐학파 해석에서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겹쳐있다는 양자 중첩의 개념을 반박하고자 제시되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소성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물리학에서는 국소성 이론이 통용되는데, 국소성이란 어떤 물체가 주변에 주는 물리적 영향은 바로 인접한 영역으로만 전파된다는 성질을 말하며, 공간을 뛰어넘어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물리적 영향을 매개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 영향이 차례차례 전달된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매개물을 통한 영향의 전달에는 유한한 시간이 걸리며 그 속도는 진공 중의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떨어진 두 물체 사이에서 국소성이란 빛보다 빠른 영향의 전달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EPR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 검은색 공과 하얀색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각각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색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인지 모른 채 두 상자를 수십 광년 떨어뜨려 놓은 후 한쪽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색을 관찰하면 다른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색을 알 수가 있다. 즉 한쪽 상자를 열어 색을 관찰하면 다른 쪽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지 않고도 그 색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색의 공들은 서로 국소성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 있으며 빛보다 빠른 존재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달리 말해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일어나는 셈이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EPR 역설을 통해 양자 역학이 예측하는 바가 ㉠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지칭하며 양자 중첩의 개념을 부정하고자 했다.

양자 역학은 확률적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확률로 표현한다.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주도한 EPR 역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연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있으나 단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양자

역학에서 확률의 개념인 양자 중첩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양자 역학에서 확률은 제거된다는 것이다. 그 ‘무언가’를 숨은 변수라 하며, 원자 수준의 실제 실험을 통해 오늘날 대부분 과학자는 숨은 변수는 없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73.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이론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현상을 설명하는 한 이론의 장점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가상 실험을 통해 특정 이론을 반박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존재하는 대상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유사한 범주의 대상을 비교하여 공통적 속성을 추리하고 있다.

74.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코펜하겐학파는 양자 중첩의 개념을 반박하였다.
- ② 실제 실험을 통해 숨은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졌다.
- ③ 불확정성의 원리는 측정의 한계 때문에 확률의 개념을 도입한다.
- ④ 측정을 하면 전자의 파동함수는 붕괴되어 겹침의 상태로 존재한다.
- ⑤ 국소성 이론에 의하면 물체가 인접하지 않은 영역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5. 위글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확정성의 원리를 증명하는 작용
- ② 진공 속의 빛의 속도보다 빠른 작용
- ③ 숨은 변수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작용
- ④ 사고 실험이 가치 없음을 반증하는 작용
- ⑤ 여러 가지 상태가 겹쳐있는 것을 인정하는 작용

76. <보기>의 ‘반응’ 중 ㉡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어떤 과학자의 주장

양자와 같은 미시 세계의 입자가 정지해 있다가 두 개의 입자로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두 입자는 정확하게 반분되고 두 입자의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따라서 입자의 운동량의 절댓값은 서로 같다. 이 경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한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반응

- (가) 두 입자의 운동 속도는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다.
- (나) 하나의 입자가 두 입자로 붕괴되는 것은 숨은 변수의 작용 때문이다.
- (다) 한 입자의 운동량 측정을 통해 다른 입자의 운동량을 알게 되는 것은 국소성 이론을 위배한다.
- (라) 붕괴한 입자 중 하나의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다른 입자의 운동량을 알 수 없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 [77~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힘을 받은 용수철은 일정 길이만큼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늘어난다. 재료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수직인 면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응력이라 하는데, 추를 제거하여 응력이 없어지면 용수철은 곧바로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다. 이처럼 가한 힘에 상응하여 순간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 한다. 탄성을 갖는 물체도 탄성 한계를 넘는 변형을 시키면 가해진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영구적인 변형이 생긴다. 탄성 한계에서는 변형과 응력은 정비례의 관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물이나 물렁물렁한 엿과 같은 물질은 힘을 가하면 시간에 따라 물체가 흐르며 변형이 생기고, 응력을 제거하여도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러한 성질을 점성이라 한다. 액체와 같이 점성을 갖는 물체의 변형은 탄성을 갖는 물체와 달리 즉각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다.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갖는 물체를 점탄성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고분자 물질들은 점탄성체이다. 점탄성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응력 완화와 크리프이다. 고분자 물질인 기타 줄의 음고(音高)는 기타 줄의 장력에 비례하여 커지는데, 기타 줄을 일정 길이만큼 늘려 음고를 고정한다. 이때 장력이란 일정 길이만큼 늘릴 때 가해진 힘에 대해 즉각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탄성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변형이 고정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타 줄에 걸린 장력이 떨어져 음고가 낮아진다. 이처럼 탄성 한계 내에서 점탄성체의 변형을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응력이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현상을 응력 완화라고 한다. 응력 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점탄성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응력을 완화하는 상태로 천천히 재배열하면서 응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크리프는 점탄성체에 고정된 응력을 받게 했을 때 물체가 서서히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일컫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책 선반에 일정한 무게의 책을 올려놓으면 책 선반이 아래로 즉각적으로 휘게 되는데, 책을 선반에서 제거하면 원래의 위치로 바로 돌아온다. 원위치로 선반이 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탄성 한계 이내의 탄성 변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같은 무게의 책을 선반에 올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 선반이 천천히 아래로 휘게 되고 ㉠ 책을 제거하여도 선반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해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가 천천히 변형되는 현상을 크리프라 한다. 크리프 역시 점탄성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응력에 의해 재배열하면서 변형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점탄성체가 갖는 탄성과 점성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발현되는가는 온도에도 크게 의존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점탄성체 분자의 유동이 원활해져서 크리프와 응력 강화가 가속화된다.

77. 윗글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응력이 제거되어도
- ② 탄성한계를 넘어서도
- ③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 ④ 분자들이 재배열 되어도
- ⑤ 가한 힘에 상응하지 않아도

7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관찰’에 대한 (가)~(라)의 ‘이해’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관찰

- 두 나무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빨랫줄을 5cm만큼 늘려서 묶었다가 바로 다시 풀었을 때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시 새 빨랫줄을 2cm만큼 늘려서 묶었다가 풀어 주니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갔다. 이후 빨랫줄을 2cm만큼 늘려 묶고 며칠이 지난 후 살펴보았더니 줄의 처짐은 없었으나 빨랫줄이 받는 힘은 처음보다 작았다.

◎ 이해

- (가) 빨랫줄을 5cm만큼 늘리는 과정에서 빨랫줄의 변형과 응력은 정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겠군.  
 (나) 빨랫줄의 장력이 낮아지는 현상은 크리프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다) 빨랫줄이 받는 힘이 작아진 것은 빨랫줄을 구성하는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군.  
 (라) 빨랫줄이 받는 힘을 빨랫줄의 겉면적으로 나눈 값이 빨랫줄이 받는 응력에 해당하겠군.

- ① (가)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가), (나), (라)

※ [79~8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장 난 전차 문제는 영국 철학자인 필리파 풋이 1967년에 처음 제시한 철학 문제이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전차가 가던 선로에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선(支線)에는 1명의 사람이 있다. 이때 당신이 전차의 기관사라면 가던 쪽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지선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만약 전차가 고장 난 채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5명의 사람이 죽게 된다. 만약 방향을 틀게 된다면 1명의 사람이 죽게 된다. 방향을 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방향을 틀게 되면 더 적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사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이다. 방향을 틀지 않아 죽게 된 5명은 기관사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고장 난 기관차에 의해 죽게 된 것이다. 기관사는 5명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다. ‘죽이는 것’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사람들의 직관이다. 따라서 방향을 틀지 않아도, 틀어도 비난을 받게 된다.

이 **딜레마**를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④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철학자 중에서는 ‘이중 효과의 원리’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행동에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모두 발생하는데 나쁜 결과를 직접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은 허용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남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지만 의료진이 주사를 놓는 행위를 비난하지 않는다. 주사를 놓은 행위는 치료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나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장 난 전차의 방향을 튼 것은 5명을 살리겠다는 좋은 결과를 의도했지만 1명이 죽었다는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나쁜 결과가 생길지 뻔히 아는데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

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장기 탈취 사고 실험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장기가 손상되어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을 환자가 5명 있다고 하자. 한 명이 건강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5명에 적합한 장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을 마취해 장기를 탈취하고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은 5명을 살린다는 좋은 결과를 위해 생긴 부수적인 나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1명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는 고장 난 전차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다.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직관은 엄격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는다. 위 사고 실험이 변형된 ㉡ ‘육교 사고 실험’이 있다. 똑같이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황인데 전차가 가는 선로의 육교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이 사람은 덩치가 커서 선로로 떨어뜨리면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러면 5명이 살게 된다고 하자. 이때 그를 밀어뜨려야 할까? 위 전차 사고 실험에서는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 실험에서는 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육교 위의 사람을 미나 전차의 방향을 트나 5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은 똑같은데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직관이 그리 일관되지 못함을 보여 준다.

79. 윗글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명이 죽거나 1명을 살리거나.
- ② 5명이 죽거나 5명을 살리거나.
- ③ 5명을 죽이거나 1명을 죽도록 내버려 두거나.
- ④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사람을 일부러 죽이거나.
- ⑤ 좋은 결과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나쁜 결과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80. 윗글의 취지에 따를 때 ㉠가 취해야 하는 일관된 태도는?

- ① ㉠에서는 장기 탈취에 찬성하고, ㉡에서는 사람 미는 것에 찬성한다.
- ② ㉠에서는 장기 탈취에 찬성하고, ㉡에서는 사람 미는 것에 반대한다.
- ③ ㉠에서는 장기 탈취에 반대하고, ㉡에서는 사람 미는 것에 찬성한다.
- ④ ㉠에서는 장기 탈취에 반대하고, ㉡에서는 사람 미는 것에 반대한다.
- ⑤ ㉠에서는 장기 탈취에, ㉡에서는 사람 미는 것에 동시에 찬성하거나, 또는 동시에 반대한다.

8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ㄱ~ㄴ을 평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굵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원조하지도 않지만 독약이 든 먹을 것을 주지도 않는다.  
 ㄴ. 산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하여 태아를 죽였다.  
 ㄷ.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량의 모르핀을 주입했는데 환자는 죽었다.

- ① ㄱ을 옹호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② ㄴ에서 태아가 죽은 것은 이중 효과의 원리에 의해 옹호된다.
- ③ ㄷ을 이중 효과의 원리로 옹호한다면 환자가 죽은 것은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이다.
- ④ 전차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방향을 트는 것이 ㄷ의 모르핀 주입과 같다고 생각한다.
- ⑤ 전차의 방향을 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5명이 죽는 것이 ㄱ에서 굵은 사람에게 독약이 든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82. ㉞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교 위의 사람이나 선로 위의 1명 모두 5명을 위해 희생된 것이다.
- ② 육교 위의 사람을 밟은 사람은 방향을 튼 사람과 달리 전차의 관계자가 아니다.
- ③ 육교 위의 사람은 직접 죽은 것이지만, 선로 위의 1명은 부수적으로 죽은 것이다.
- ④ 육교 위의 사람을 밟은 사람이나 방향을 튼 사람이나 죽이려는 의사는 똑같이 있었다.
- ⑤ 육교 위의 사람은 전차를 멈추게 했지만, 전차의 방향을 튼 것은 전차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 [83~8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 1. ㉞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행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재외 국민과 외국인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 1) 건강·의료

- 이전엔 만 14세 미만 자녀의 1년 이내 투약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 대리인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창업·고용

- 정책 자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18종의 구비 서류를 하나의 행정 정보 묶음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구비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제출하느라 최장 5일이 걸리던 소요 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 3) 생활·안전

- 긴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병력,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개인 병력 이력 등 응급 환자에 대한 필수 확인 정보를 119 구급대원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가 변경됐을 때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국민이 직접 수정하지 않아도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예시

서비스명	활용 행정 정보
은행 신용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증명</li> <li>•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li> </ul>
아동 급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li> </ul>
소상공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명</li> <li>• 폐업사실증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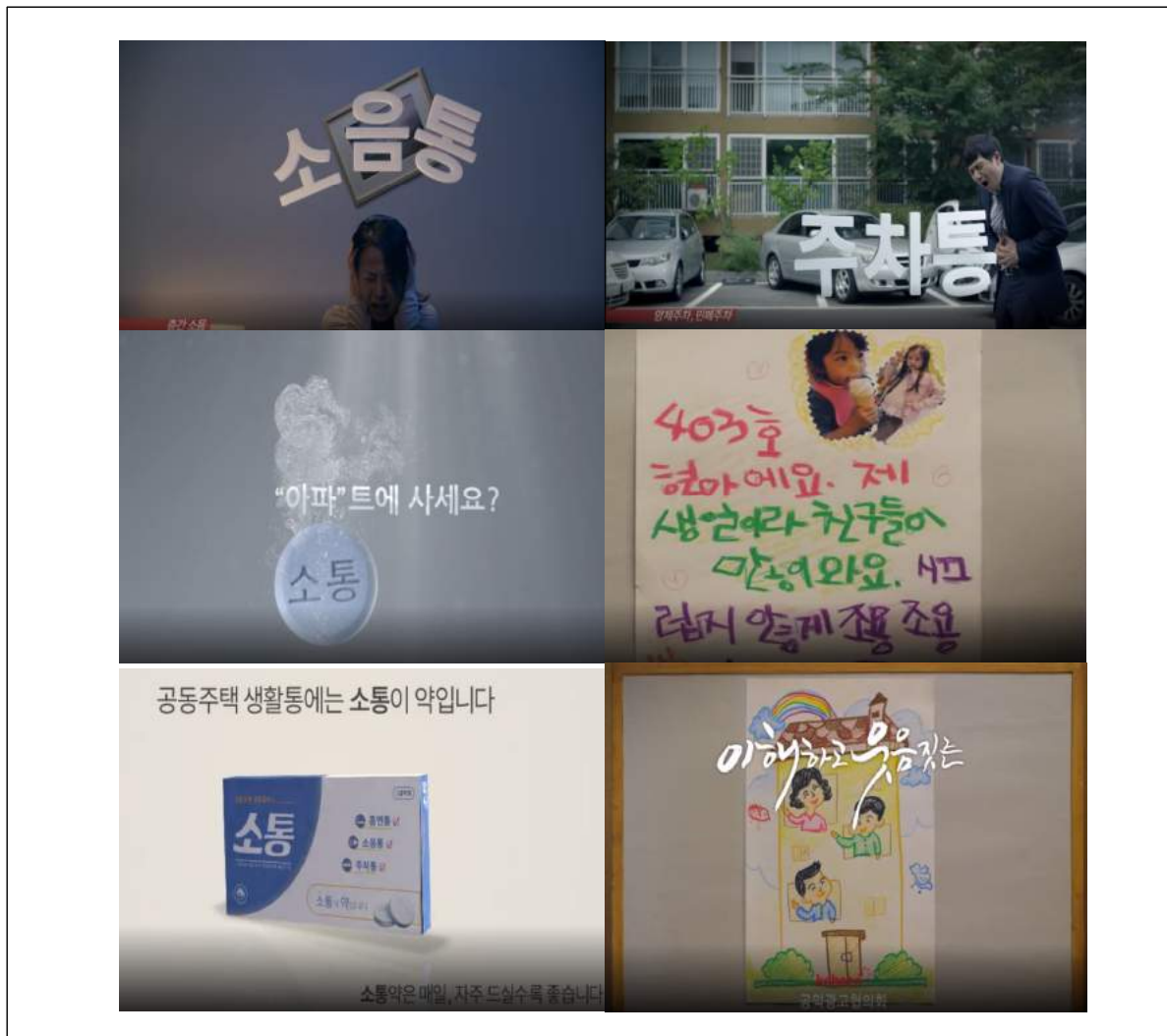
8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국민이 직접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 ③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책 자금 신청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이다.
- ④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 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8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직장인
- ② 자녀의 급식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학부모
- ③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 ④ 무료 급식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초등학생
- 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당 사장님

85. 다음 공익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외된 이웃에게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②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 직접 마주 보며 대화해야 한다.
- ③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 ④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 [86~8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삶과 문화] ‘알아야 면장’...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라고?

한국어는 유래나 어원이 밝혀지지 않은 말이 많다. 민간 어원도 뒤죽박죽 섞여서, 예컨대 훈몽자회(1527)에 이미 ‘행주’가 나옴에도 ‘행주치마’가 행주대첩(1593)에서 유래한다고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붓, 떡, 배추 등 언뜻 고유어 같지만 사실은 중국어 귀화어이거나 ‘김치’처럼 한국 한자어가 변한 말도 있고 ‘생각’처럼 취음자 ‘生覺’ 탓에 한자어 느낌이 드는 말도 있다.

㉠ ‘알아야 면장’이 알고 보니 ‘面長’이 아니고 ‘面牆(담을 마주 대하듯 앞이 안 보임, 견문이 좁음)을 피하다’의 ‘면면장(免面牆)’에서 왔다는 설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퍼졌다. 통념을 뒤집으니 일단 웬지 그럴싸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에 한자 한 자가 더 붙었다가 다시 빠져 속담이 됐다? 다들 ‘面長’으로 알고 뜻도 잘 통하는데, 검증 없이 억지스레 갖다 붙인 느낌이다. 주로 ㉡ 한문에서 유래하는 고사성어와 달리 ㉢ 속담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말이 대다수다.

‘면장(面牆)’은 중국어, 일본어 사전들에서 서경(書經), 후한서(後漢書) 등이 출처로 언급된다. 그런데 한국 사이트나 기사, 책에서는 논어(論語)의 양화(陽貨)에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공부를 강조하며 하는 말로 나오나, 정작 ‘면면장(免面牆)’이라는 구절은 없다.

人而不為 ‘周南’, ‘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사람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는다면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같지 않겠는가?)

배우지 않으면 담에 가로막혀 앞도 안 보이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는 어쨌든 같지만, 논어 구절은 ‘면장’도 아닌 ‘장면(牆面)’이며 ‘면할 면(免)’도 없고, 중국어든 일본어든 ‘免面牆’이나 ‘免牆’이라는 속어나 관용어도 안 쓴다. 한문을 좀 아는 호사가 들한테 논어부터 떠올라서 그랬겠지만 굳이 후한서나 서경을 출처로 언급하지 않고 ‘免面牆’도 지어낸 데서 신빙성은 더 떨어진다.

‘알아야 면장’이 조선시대부터 쓰였다는 증거도 없다. 면장이라는 관직은 1910년 생겼다. 이 속담은 1962년 민중서관에서 펴낸 ‘속담사전’에 나오고, 매일경제 1966년 12월 26일 자 ‘알아야 面長을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때, 아무리 일러야 1940~50년대쯤부터 퍼진 걸로 짐작된다. 그때부터 퍼진 속담에 뜬금없이 논어든 다른 한문이든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어원이 좀 알쏭달쏭하다고 여겼는지 표준국어대사전은 속담이 ‘면장(面長)’과 ‘면장(面牆)’ 항목에는 없고 ‘알다’에 있다. 다만 ‘알아야 면장을 하지’의 뜻풀이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듯이 ‘면장(面長)’을 넘기지 드러낸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면장’과 ‘알다’ 항목에 ‘배워야 면장이라’와 ‘알아야 면장(도 하지)’이 있고, 속담 풀이는 ‘그래도 얼마간의 지식이라도 있어야 면장 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아



무엇이나 다 그 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해당한 일을 맡아 할 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라 나온다.

종합하면 '알아야 면장'이 '免面牆/免牆'이라는 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생긴 가짜 어원일 가능성이 높다. 통념이나 통설을 깨려면 제대로 깨야 한다. 통념을 깨는 재미에만 몰두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꾸며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꼭 통념을 깨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통념이다.


86. ㉠을 반박하는 논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장(面長)'의 어원이라고 주장하는 '면면장(免面牆)'은 문증되지 않는다.
- ② '면장(面牆)'이 문증되는 문헌보다 '면장(面長)'은 훨씬 후대에 출현하는 말이다.
- ③ '논어'에는 '장면(牆面)'으로 되어 있어 '면장(面長)'과는 어형의 차이가 적지 않다.
- ④ 속담은 한문에서 유래하는 고사성어와는 달리 주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 ⑤ '표준국어대사전'에 속담 '알아야 면장'은 '면장(面長)'이 아닌 '알다' 아래에 실려 있다.

87. ㉡과 ㉢이 같은 의미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등하불명(燈下不明) - 등잔 밑이 어둡다
- ② 고장난명(孤掌難鳴) - 외손뼉이 소리 날까
- ③ 계란유골(鷄卵有骨) - 달걀에도 뼈가 있다
- ④ 동가홍상(同價紅裳)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88~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제목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 지원 사업 안내
<p>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p> <p>㉠ 1. 지원 안내</p> <p>○ 지원 대상: 폭염 재난의 ㉡ 리스크가 큰 작업을 보유한 50명 미만인 모든 업종 사업장 (단,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 기준)</p> <p>※ 참여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 제한 ㉢ 이슈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4항(보조금 부담수급 등)에 따른 제한 기간 중인 사업장</p> <p>▶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p> </div> <p>○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모두 신품에 한함)</p> <p>※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원 품목을 ㉣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제품 및 공급 업체를 선정할 것</p> <p>○ 지원 한도: 사업장 당 2,000만 원</p>	

※ 추가 ㉔ 가이드라인: 제품의 ㉔ 브랜드, 성능, 소재 차이에 따른 초과 금액은 사업장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

㉔ 2. 추가 지원 안내

○ 추가 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100순위까지 추가 1,000만 원 지원

- ▶ 우선 순위 가산점(최대 5점)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1.5점)
  - 폭염 취약 계층 근로자(산재보험 가입 만 50세 이상) 5명 이상 고용 사업장(1점)
  - 폭염 재난 취약 작업 사업장(1.5점): 건설업, 농업 및 어업
- ▶ 최우선 선정 대상(가산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선정함)
  -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88. ㉑~㉔을 다듬은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리스크(risk) → 위험
- ② ㉒ 이슈(issue) → 사고
- ③ ㉓ 모니터링(monitring) → 점검
- ④ ㉔ 가이드라인(guideline) → 지침
- ⑤ ㉕ 브랜드(brand) → 상표

89.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업장의 산재 보험 가입자 수가 50명이면 보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최대한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품목에는 중고품이 포함된다.
- ③ 공단이 특정 제품과 공급 업체 목록을 정리하여 지원 품목을 사업장에 제공한다.
- ④ 작년에 근로자의 산재 보험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상위 성능과 소재의 제품 선택으로 초과 금액 발생 시 공단이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90. ㉕와 <보기>를 고려하였을 때 밑줄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업장 운영 특징	사업장 규모	만 50세 이상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	업종	비고
A	20명	6명	건설업	특이 사항 없음
B	7명	2명	농업	5년 전 산재보험 체납 이력
C	45명	0명	철강제조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 ① 사업장 'A'는 2.5점의 가산점으로 추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겠군.
- ② 사업장 'B'는 사업장 'A'보다 추가 지원 대상 순위가 더 높겠군.
- ③ 사업장 'B'는 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겠군.
- ④ 사업장 'C'는 폭염 재난 취약 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 ⑤ 사업장 'A', 'B', 'C' 중 사업장 'C'의 추가 지원 대상 순위가 가장 낮겠군.

## [국어 문화] (91번~100번)

91. &lt;보기&gt;에서 설명하는 문학 작품은?

&lt; 보 기 &gt;

김시습이 지은 전기(傳奇) 소설. 주인공이 부모의 허락을 얻어 몰래 만나던 최랑(崔娘)과 혼인을 하지만 홍건적의 무리가 최랑을 죽이는 바람에 현세에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하여 죽은 최랑의 영혼과 사랑을 나누다가 최랑이 저승으로 돌아간 후 주인공도 병이 들어 죽는다는 내용으로, 《금오신화》에 실려 있다.

- ① <남염부주지>                      ② <이생규장전>                      ③ <만복사저포기>  
 ④ <용궁부연록>                      ⑤ <취유부벽정기>

92. &lt;보기&gt;에서 설명하는 문학 작품은?

&lt; 보 기 &gt;

이인적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청일전쟁 때 평양 모란봉의 참상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뒤 10년간의 세월 동안 옥련 일가가 겪어야 했던 기구한 운명과 개화기의 시대상을 한국·일본 및 미국을 무대로 그린 작품이다. 문명사회에 대한 동경과 신교육, 여권 신장과 같은 새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① <무정>                      ② <자유종>                      ③ <추월색>                      ④ <혈의 누>                      ⑤ <금수회의록>

93. &lt;보기&gt;에서 설명하는 작가는?

&lt; 보 기 &gt;

1931년 《동광》에 시 <나의 꿈>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40년에 첫 단편집인 《눈》을 펴낸 후 소설 창작에 집중하였다. 작가 특유의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를 통해 높은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목님이 마을의 개>, <별과 같이 살다>, <카인의 후예>, <독 짓는 늙은이>, <일월> 등이 있다.

- ① 황순원                      ② 김동리                      ③ 오상원                      ④ 김동인                      ⑤ 이효석

94. &lt;보기&gt;는 일제 강점기 신문에 게재된 연극 광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lt; 보 기 &gt;

토월회(土月會) 기념(紀念) 흥행(興行)

금야(今夜)부터 개연(開演)

기보한 바와 가티 토월회에서는 동회 일주년 기념 흥행으로 금 십삼일 밤부터 일개월 동안을 조선 극장에서 여러 가지 자미스러운 예제로 흥행할 터인바 료금은 전과 갓흐며 첫날 예제는 비극 두 막과 최후의 일순간이라는 것 두 막과 일반과 남자에게 큰 호평으로 환영을 받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것 한 막이라는데 관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좌석도 정돈되었스며 무대와 출연자들도 일신하게 되었다 한다

- 『시대일보』, 1924년 6월 13일 광고

- ① 토월회의 1주년 기념 공연이다.
- ② 공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 ③ 공연의 장소는 조선 극장이다.
- ④ 첫날 공연될 작품은 총 두 작품이다.
- ⑤ 공연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95. <보기>에 쓰인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박씨 화교에서 내려 계화를 앞세우고 청루에 올라, 모든 부인과 ㉠ 예필(禮畢) 후 각각 좌정하여 동서로 앉았으니, 각 덕 공후부인(公侯夫人)의 고운 얼굴과 선명한 의복 단장이 일대 선녀가 ㉡ 요지(瑤池)에 오른 듯 광채 찬란한지라. 그중에 박씨 옥 같은 얼굴과 달 같은 태도로 ㉢ 위의(威儀) 거룩하고 풍채(風采) 정정하니, 아무리 인간 인물인들 ㉣ 선범(仙凡)이 같을소냐. 좌중이 한 번 보매 도리어 경신함양(敬信欽仰)하여 감히 언어를 통치 못하겠더라. 이윽하여 ㉤ 배반(杯盤)이 낭자하더니, 술이 박씨에게 미치매, 박씨 잔을 잡아 짐짓 치마에 기울이니 치마가 젖는지라.

- 「박씨전」

- ① ㉠ 예필: 인사를 끝마침
- ② ㉡ 요지: 신선이 살았다는 못
- ③ ㉢ 위의: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
- ④ ㉣ 선범: 신선 세계에 산다는 상상의 사람
- ⑤ ㉤ 배반: 술상에 차려 놓은 그릇

96. 다음은 원본 『훈민정음』(1446)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99. 밑줄 친 법률 문장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법)

- ① 사원이 없으면 총회의 결의로도
- ② 사원이 없을 경우 총회의 결의로도
- ③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정으로도
- ④ 사원의 부재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도
- 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도

100. 기사문에 나타난 문장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회용품 사용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 있다’를 활용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1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78%에 달한다.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1인 미디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④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 ⑤ ○○고 2학년 박 모 학생은, 청소년 체험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아쉬웠다고 하였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청소년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